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지난해 공장을 돌아볼 때에는 자라마리 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식장들마다 자라들이 육설거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불라는 탐구심을 안고 자라들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양식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제작한 현대적인 자라알깨우기기계와 무인먹이운반공급기를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알깨우기 실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양식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달의 의도에 맞게 평양자라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것만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라 생산계획을 해마다 어김없이 수행하는것과 함께 자라마리수를 계속 늘일데 대한 문제, 우량품종의 자라종자들을 확보하고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질실히 세우고 방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정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자라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한심하기 그지없는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억이 막혀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주저앉았던 공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보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진다고,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속에 평양자라공장이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개건공사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친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자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열사복무 정신을 안고 더 많은 자라를 생산하

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자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켜주시고 쿾은남도 바다까지 안으시고 찾아오시여 인민사랑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도담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라양식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